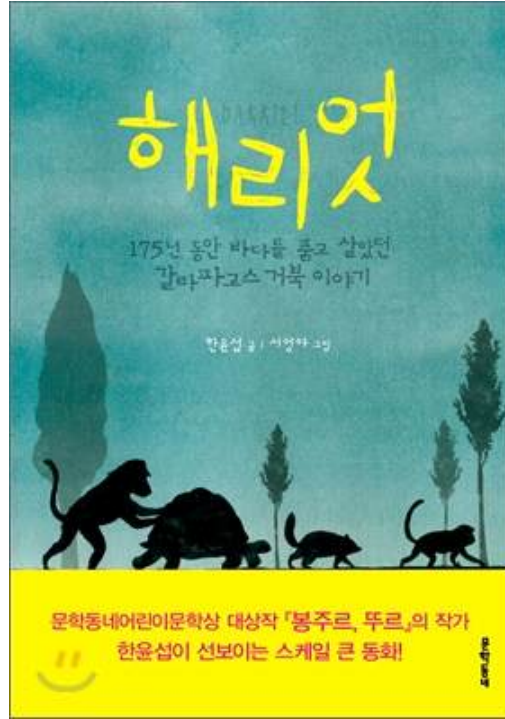


## 『해리엇』 독서 활동지\_책 내용 상상하기

※ 책 표지를 관찰하고, 이 책에 등장할 것 같은 동물을 6개 골라봅시다. 그리고 어떤 내용일지 상상해 봅시다.



〈사진 출처: 에스24 홈페이지〉

여우	앵무새	갈라파고스 거북	두더지	박쥐
족제비	개코 원숭이	다람쥐	담비	코알라
흰 너구리	오소리	딩고	바다사자	범고래

- 이야기의 배경은 어디일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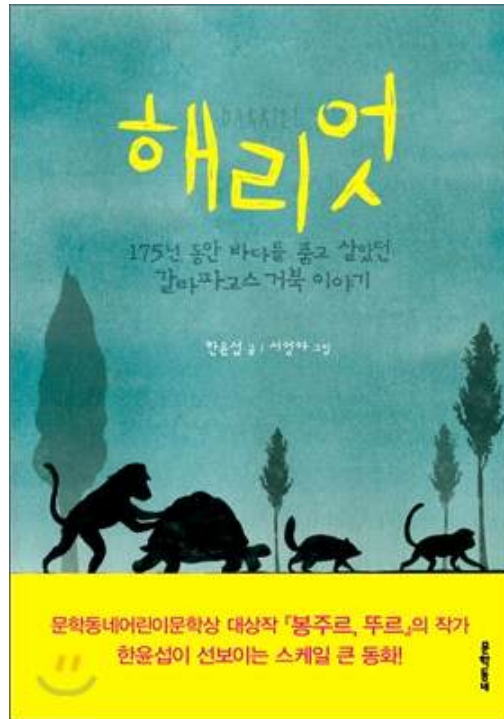
- 표지 속 동물들은 어디로 가는 중일까요?

.....

# 『해리엇』 독서 활동지\_책 내용 상상하기

(답)

※ 책 표지를 관찰하고, 이 책에 등장할 것 같은 동물을 6개 골라봅시다. 그리고 어떤 내용일지 상상해 봅시다.



〈사진 출처: 에스24 홈페이지〉

여우	앵무새	갈라파고스 거북	두더지	박쥐
○		○		
족제비	개코원숭이	다람쥐	담비	코알라
	○			○
흰 너구리	오소리	딩고	바다사자	범고래
○	○			

- 이야기의 배경은 어디일까요?

.....

- 표지 속 동물들은 어디로 가는 중일까요?

.....

## 『해리엇』 독서 활동지\_그래 결심했어!

※ 찰리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 번 선택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 생각해 보고 이유를 써 봅시다.

### 58~60쪽

스미스는 찰리에게 열쇠 꾸러미를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괴롭히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찰리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자신의 의견에 O표 하고 이유를 써 봅시다.

스미스에게 열쇠를 준다.

스미스에게 열쇠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

### 86~95쪽

스미스의 아기가 사탕을 먹다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찰리는 열쇠로 문을 열고 올드와 함께 개코원숭이네 우리로 갑니다. 개코원숭이 우리에 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기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찰리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자신의 의견에 O표 하고 이유를 써 봅시다.

열쇠로 우리의 문을 열어 준다.

우리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

### 139~149쪽

죽을 날이 머지 않은 해리엇을 바다로 보내주기 위해 찰리를 비롯한 동물 친구들이 길을 나섭니다. 사육사에게 들킬지도 모르고, 차가 뽕뽕 달려 다소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동물원 동물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자신의 의견에 O표 하고 이유를 써 봅시다.

해리엇을 바다에 데려다 준다.

해리엇에 동물원에서 편안히 숨을 거둘 수 있게 도와준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

### 151~153쪽

해리엇이 떠나고, 스미스는 멀리 숲을 바라봅니다. 찰리는 스미스에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미스는 동물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스미스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자신의 의견에 O표 하고 이유를 써 봅시다.

숲으로 돌아간다.

동물원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

## 『해리엇』 독서 활동지

※ 동화를 읽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게 됩니다.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고, 이유를 말해 봅시다.

등장인물	떠오르는 사람	이유
(예시) 해리엇	이태석 신부님	해리엇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찰리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모습이 이태석 신부님이 톤즈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 모습과 비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해리엇		
찰리		
스미스		
테드의 부모님		

## 『해리엇』 독서 활동지\_동물원은 필요한 시설인가?

※ 찰리가 동물원에 가게 된 것을 알게 된 힌 줄 원숭이는 찰리에게 운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동물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동물원은 필요한 시설인가?’에 대한 각종 자료를 더 찾아보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글로** 표현해 봅시다.

### 22~23쪽

“꼬마야, 넌 운이 좋아.”

힌 줄 원숭이었다.

“넌 동물원으로 갈 거야. 거기는 동물들이 살기 편한 곳이지. 인생이 갑갑하고 지루하겠지만, 그대로 목숨은 안전하니까.”

‘동물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사람들이 여러 동물들을 모아 놓고 구경하는 곳이야.”

“왜 동물들을 구경해요?”

“가 보면 알아. 그 아이는 동물원에서 온 아이야.”

동물원처럼 동물을 수용하고 전시하는 국내시설은 100여 개 가까이 된다. 사람들은 동물 학대와 열악한 사육환경에 대해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 왔다. 2016년 ‘동물원 법’도 제정되었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여전히 동물 학대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동물원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동물원이 인간의 여가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감옥이라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동물의 ‘보호’보다는 ‘관람’에 중점을 둔 공개적 사육 시설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반면, 동물원이 멸종 위기 동물의 개체 수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동물원은 인간의 선한 의도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될 수 있는 시설일까? 아니면, 동물을 학대하는 시설일까?

<주장하는 글쓰기>